



국가예산 확보 다지기

전북도가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을 차례로 돌며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25일 조병업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가 국회를 찾아 국정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도내 철도 타당성 조사 빠르면 올해 안에 착수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6개 사업 용역 추진할 것”

전북은 전주~김천·광주~대구달빛내륙·익산~여수 등 3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북도 3개(▲전주~김천 철도,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전라선(익산~여수)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착수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6개 사업(▲전주~김천선,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전라선(익산~여수),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삼척~강릉선)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피력하며, 전북도 건의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도정 중점 현안 사업으로 삼아왔다.

실제 도는 국토부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시작한 지난 2019년 7월부터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정치권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며, 도 건의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 매진해 왔다.

특히, 송 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무주 라제동문에서 경북도와 전주~김천 철도건설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이후, 21년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발표되자, 다시 경북도와 함께 중점사업으로 반영토록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전북도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올 7월 5일 전북도 건의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는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추가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전주~김천 철도가 반영, 확정·고시됐다.

특히, 전주~김천 철도는 구간 제1차~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됐으나,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신규사업과 동등한 선에서 같은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전주~김천 철도가 건설되면 전주에서 김천까지 직통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시간 및 운임 부담 절감은 물론, 그동안 철도교통 불모지인 진안, 무주 지역에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북 동부권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주요거점을 고속화노선으로 연결해 동·서간 이동시간 단축과 교류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도의 철도교통 불모지인 장수군 순창군도 철도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선(익산~여수)은 익산~전주 구간이 급구배·급커브 구간으로 구간 이용객의 철도이용에 불편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구간을 개량 및 고속화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호성 기자

코로나19 속 두번째 수능... 방역에 최선

도교육청 2022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운영 계획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전형
별도 가림막 없이 실시
점심시간 종이 가림막 사용

사상 처음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전형으로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속 두 번째 수능으로, 별도 가림막 없이 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점심시간 내 종이 가림막은 사용한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제작 후 시험장 학교에 배송될 예정이다.

‘코로나 수능’으로 지난해에는 시험시간 내내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이 이뤄짐에 따라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종이 가림막을 사용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은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9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인원은 전년보다 124명 증가한 1만7,280명이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먼저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운영한다.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 62개를 지정, 일반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88실을 마련했다.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 6개소와 병원시험장 1개소도 지정했다. 별도시험장은 전주교육문화회관·군산동고·원광정보예술고·정읍학생복지



조성규 학교교육과장이 종이 가림막 설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가격리 수험생 위해
별도시험장은 6곳
병원시험장은 1곳 지정
1주 전 원격수업 전환

회관·남원교육문화회관·김제교육문화회관 등 시험지구마다 1곳씩 마련하고, 군산의료원을 병원시험장으로 운영한다.

또한 11월 4일부터는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며, 스터디카페와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한다.

특히 수능 1주 전부터 수능 다음 날까지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감독관 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수능 응시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는 보건소의 PCR검사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1인당 마스크 3매씩을 수능일에 제공할 계획이다.

점심시간에는 종이 가림막을 사용한다.

한편, 매 시간이 끝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또 시험 종료 후에는 안내에 따라 일반시험실부터 별도시험실 순으로 퇴실하고, 시험 종료 후 별도시험실 수험생의 증세가 지속될 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조성규 학교교육과장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응시환경 구축, 상황관리,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축! 전주매일 창간

멋따라 노을따라 이 가을 부안에서

채석강-적벽강 일원(영승 제13호)

직소폭포(영승 제116호)

우금바위 일원(영승 제123호)

부안군
BUAN-GUN